

하얀 꽃이 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쌀알 같은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지만 봄날 산에 들에 하얗게 깔린 꽃. 봄날이면 꽃보다는 나물로, 냉이라는 나물로 사람들의 밥상 위에 올라 꽃보다 향을 먼저 전하는 꽃. 꽃보다 맛을 먼저 전하는 꽃. 너무 오랫동안 꽃을 버리고 나물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꽃보다 나물로 불리는 꽃. 아니 처음부터 나물로 불려야 했던 꽃. 냉이꽃입니다.

봄날이면 떠오르는 게 꽃이지요. 봄은, 봄날은 그래서 꽃피는 시절, 꽃시절이지요. 그 꽃피는 시절에 꽃이 되지 못한 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꽃들입니다. 나물, 나물이라 부르지만 나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나물은 아니었지요. 그들도 알고 보면 꽃이었지요. 사람들이 식용으로 만들었을 뿐.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 위해 꽃이 되기도 전에 나물로 생애를 마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뜻일 뿐. 나물도 사실은 꽃이었습니니다.

옛날 우리 엄마들은 봄날이면 으레 밭으로 들로 산으로 나가 나물을 캐습니니다. 냉이며 달래며 쑥이며 한 바구니 가득 나물을 캐어 와서 반찬이며 국으로 만들어 식구들 밥상에 올렸습니니다. 그리고 보면 나물과 엄마는 닮은꼴이지요. 꽃이었으나 꽃이 되지 못하고 일생을 보낸 것이니 '나물과 엄마'는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그렇게 닮은꼴이지요. 그래서 그런가요? 냉이는 꽃말('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마저도 엄마를 닮았습니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은 오직 어머니뿐이지요. "냉이는 잔뿌리까지 먹는 거여……"

참 신기합니다. 냉이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나물 얘기를 하게 되고, 나물을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엄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냉이를 소재로 한 시마다 엄마가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니다.

봄날은 갔지만 엄마도 한때 꽃이었다는 것을, 아니 엄마도 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다가 공연히 엄마가 끌어준 냉이된장국이 그리워지는, 아니 "냉이는 잔뿌리까지 먹는 거여" 냉이국 먹여주시던 엄마가 "나를 푸르고 아프게 깨우는" 참 서러운 날입니다. 냉이꽃. 이제는 어머니꽃이라 불려야겠습니니다.

- 「사는 게 함 꽃 같아아」 (늘봄, 2018)에서 퍼온 글입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므로 복을 누리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세 이상인 분들께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❷ 매주 수요일에 거리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 구원에 한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❸ 5월 중보기도카드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연합

▶ 다음 주 - 8셀

◆ 5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5/ 7	어린이주일
5/14	어버이주일
5/20	어린이대축제 (성암교회)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